

# 손으로 보는 세상



## 시선집중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시각장애인지원센터로!

## 테마기획

독일 Sight City 보조공학 전시회,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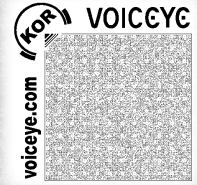
## 인터뷰

시각장애인이 가르쳐주는 한국어  
KOREAN AT YOUR DOOR 대표 김현진

## 포커스

손과 귀로 느끼는 빈센트 반 고흐

목차	02	
점자로 말해요	03	● 바다
시선집중	04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시각장애인지원센터로! 이연주
테마기획	06	● 독일 Sight City 보조공학 전시회,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인터뷰	08	● 시각장애인이 가르쳐주는 한국어 KOREAN AT YOUR DOOR 대표 김현진
포커스	10	● 손과 귀로 느끼는 빈센트 반 고흐
함께 사는 이야기	12	● 새로운 도전 류재성(시각 1급_서울특별시 종로구)
월드 리포트	13	● 시드니 공항, 시각장애인 여행객 위한 새로운 기술 도입해 ● 카메라로 세상을 보는 영국의 사진작가 Ian Treherne
뉴스앨범	14	● 가정 내 잔고장,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 연락주세요! ● 제10회 시각장애여성지도자 연수 성료 ● 2019년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가 열렸습니다! ● 2019년도 소리특강 15기 수료식 열려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16	● 노래방에 갈 때



무더운 여름에는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 바다는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  
○○○○  
바다

① ④  
② ⑤  
③ ⑥

점자일람표															
자 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받 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ㅅ받침
모 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음	ㅙ	ㅚ	ㅜ	ㅠ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ㅑ	ㅓ	ㅕ	ㅗ
약 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자	열	영	육	온	웅	운	울	은	을	인	것				
약 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숫 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문 장 부 호	!	?	.	,	-	~(—)	*	“ ”	‘ ’	/					
영 어	영어시작	끝	대문자	a	b	c	d	e	f	g	h	i	j	k	l
어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아프스트로피 ,

•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스, 지, 초, 쑈, 쑈' 다음에 약자 영 ㅅ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시각장애인지원센터로!

이 연 주

지난 4월 23일 국회도서관에서는 한시련과 이명수 국회의원, 기동민 국회의원, 최도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시각장애인 복지전달체계 모형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의 명칭 변경과 기능 확대에 관한 내용이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1984년 맹인심부름센터로 시작하여 수십년간 시각장애인의 손발이 되어 그야말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왔었다. 그러나 센터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고, 흔히 장콜이라고 하는 특별교통수단이 설립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이외의 장애인들에게까지 이용대상이 확대되었다. 더 나아가 중복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통폐합을 운운하는 공무원, 지방의원 등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센터는 최초 설립부터 현재까지도 단순한 이동지원수단이 아닌 '도어 인 도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입니다. '도어 인 도어' 서비스 이해가 부족한 공무원이나 지방의원들은 센터가 시각장애인만의 시설이 아님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특별교통수단이 일반적 이동지원을 제공하는 것처럼 센터도 그러한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사업 운운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안이하게 대처해온 우리들의 자세도 큰 몫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아직 늦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시각장애인 복지인프라가 열악하고, 65세 이상 고령 시각장애인의 수가 전체 시각장애인의 50%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각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하고 도어 인 도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탈바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현재의 명칭은 정부나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조차도 제공하기 어렵다.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센터의 사업 범위를 넓혀 놓긴 했지만 결국은 시각장애인만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님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부분이다.

센터가 시각장애인의 복지전달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수어통역센터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처럼 법률 개정을 통하여 시각장애인지원센터로 명확히 하고, 그 기능 역시 재활교육, 재활상담, 재활정보 제공 등 미니복지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우리 내부의 의견을 통일하고 한목소리로 추진해 시각장애인의 진정한 복지전달체계가 되기를 바란다.

## 독일 Sight City 보조공학 전시회,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홍순봉, 이하 '한시련')는 2019년 5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Sheraton Frankfurt Airport Hotel에서 개최된 Sight City 세미나 및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장애인 보조기기 전시회인 Sight City는 미국의 CSUN과 달리 전시회 중심의 행사로써 2016년도와 마찬가지로 130개 이상의 업체들이 개발한 보조기기 및 기술을 선보이는 제품전시 외에도 여러 독일의 장애인 단체 및 기관들이 자신의 사업을 소개하고 서비스를 알리는 기회로 삼고 있는데요. 다양한 주제의 토론과 강의를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보조공학 기술 및 관련 기기의 국제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사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직장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 점자프린터 및 타자기, 네비게이션 시스템, 광학 돋보기, 특수 조명 등의 종류와 기능면에서 한층 다양해지고 진보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시련은 전시회에 참여한 여러 독일의 장애인 단체 및 기관들과 시각장애인재활서비스전달체계 및 시설현황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국내 시각장애인 재활서비스전달체계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교육용 보조기기로 Viewplus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기기는 터치스크린 화면에 좌표를 설정해 놓고, 화학기호를 입력해 해당 위치에 손을 대면 그 화학기호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교육용 보조기기였습니다. 이 기기를 살펴본 학생들은 이 기기를 통해 화학은 물론 수학이나 물리, 사회과부도 등 다양한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흥미로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시련 홍순봉 회장은 “Sight City 보조공학 전시회 참가를 통하여 보조공학의 새로운 기술 및 동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기술과 학문적 배경을 체득함으로써 시각장애인 보조공학 국내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수준도 살펴보았는데요. 아쉽게도 그 수준이 유럽의 선진국이며 경제·금융의 중심지이자 허브도시인 독일의 명성에 걸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 비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다소 뒤쳐진 것 면도 있다고 판단되었고, 도로와 공항, 기차역, 지하철 등의 여객시설과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공공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 사례는 우리나라의 장애인등편의법 설치 세부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함께 갔던 시각장애인은 도로나 여객시설에서의 중증 시각장애인 독립 보행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독일도 앞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많은 발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 시각장애인이 가르쳐주는 한국어 KOREAN AT YOUR DOOR 대표 김현진

베트남,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전화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KOREAN AT YOUR DOOR(KAYD)인데요.

이번 호에서는 KAYD의 김현진 대표를 만나보았습니다.



Q. 안녕하세요, KOREAN AT YOUR DOOR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저희는 외국인들에게 시각장애인 선생님들이 전화로 하루 20분~30분씩 한국어를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등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500여 명 정도가 가입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Q.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A. 대학생활 때 인턴으로 두 곳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1년 6개월의 인턴 생활과 월드비전에서 1년 6개월의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인턴으로 근무 기간이 종료된 후 취업 준비를 하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제가 취업을 하려는 많은 기업들에게 본질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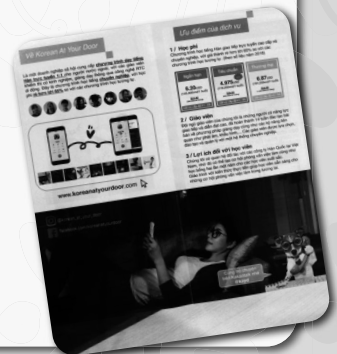
그래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부모님과 함께 고민을 하게 되었고, 사회적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함께 근무했던 장애인들의 삶이 변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무언가가 떠올랐던 경험이 생각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장애인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여러 장애유형이 있는데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A. 고민 끝에 제가 원하는 일을 하기로 하고 여러 장애유형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와 시각장애인에 대해 심층적인 접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조사를 하다 보니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의지와 열정이 있으나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직업도 되고, 시각장애로 인한 제약도 없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korean atyourdoor

**Q. KAYD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시각장애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분들이 느끼시는 국내의 일자리 상황은 어땠나요?**

**A.** 시각장애인의 직업군 조사를 위해 다양한 복지관을 방문하고 시각장애인 당사자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연애나 취미 등과 같은 사소한 질문부터 현재 장애인으로서 겪는 불편, 원하는 일자리와 환경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분들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시길 원했고, 이동의 제약이 없는 지적인 노동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국내에는 그런 일자리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시각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조사했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니다. 대부분 안마업에 종사하시거나 공무원 시험을 보시는 분들, 특수교사나 점역·교정사 등 직업군이 다양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Q. 그렇군요. KOREAN AT YOUR DOOR라는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되셨나요?**

**A.** 영어 표현 중에 Opportunity at your doo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회는 문 뒤에 바로 있다는 표현인데요. 한국어도 당신이 원하면 바로 문 앞에 있다라는 의미로 한국어 배우는 것이 그만큼 쉽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Q. 현재 KAYD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한국어 선생님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A.** 지금은 5분 정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목표는 정규직 선생님 10분과 함께 사회적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인데요. 능력 있는 선생님들과 한국어 함께 하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영어를 사용할 수 있고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가르치는 것에 흥미를 가지시는 분이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KAYD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A.** 목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소박한 꿈을 말씀드리자면 KAYD가 사회적기업과 같은 회사의 모양을 갖추게 되면 가까운 곳이라도 워크숍을 함께 다녀오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은 소규모다 보니 함께 모여 워크숍처럼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나중에 회원이 많아진다면 꼭 모두 함께 워크숍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먼 미래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5년 안에 100명의 시각장애인 한국어 선생님을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파트타임으로 일하시지만 분명 정규직으로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시각장애인의 직업군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열심히 매진할 생각입니다.

# 빈센트 반 고흐의 일생

## EXPERIENCE A JOURNEY THROUGH VINCENT'S LIFE

위대한 SUCCESS 1891 - 현재 / 1891-Today



**어린 시절**  
Early Life  
1852-1869

**화가로서의 시작**  
Emerging Artist  
1869-1885

**성장과 도약**  
Emerging Artist  
1885-1890

**프랑스 남부**  
In the South  
1888

**광기 어린 천재**  
Illness & Creativity  
1889-1890

1914년 테오의 미망인, 요한나 반 고흐-봉거(Jo van Gogh-Bonger)가 빈센트의 테오의 서신을 출판한다.

1914 Theo's widow, Jo van Gogh-Bonger, publishes Vincent and Theo's letters.

1973년 6월 30일 암스테르담에 반 고흐 미술관이 개장되다.

3 June 1973 The Van Gogh Museum opens in Amsterdam.

1852년 3월 23일 네덜란드 남부 지방의 작은 마을인 트르베르에서 빈센트 반 고흐가 태어났다.

1869년 11월 11일 빈센트는 미술학부에서 미술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1885년 11월 18일 빈센트는 미술학부에서 미술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1888년 10월 23일 빈센트는 미술학부에서 미술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1889년 5월 8일 빈센트는 미술학부에서 미술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1852년 3월 23일 네덜란드 남부 지방의 작은 마을인 트르베르에서 빈센트 반 고흐가 태어났다.

1869년 11월 11일 빈센트는 미술학부에서 미술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1885년 11월 18일 빈센트는 미술학부에서 미술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1888년 10월 23일 빈센트는 미술학부에서 미술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1889년 5월 8일 빈센트는 미술학부에서 미술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1852년 3월 23일 네덜란드 남부 지방의 작은 마을인 트르베르에서 빈센트 반 고흐가 태어났다.

1869년 11월 11일 빈센트는 미술학부에서 미술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1885년 11월 18일 빈센트는 미술학부에서 미술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1888년 10월 23일 빈센트는 미술학부에서 미술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1889년 5월 8일 빈센트는 미술학부에서 미술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1852년 3월 23일 네덜란드 남부 지방의 작은 마을인 트르베르에서 빈센트 반 고흐가 태어났다.

1869년 11월 11일 빈센트는 미술학부에서 미술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1885년 11월 18일 빈센트는 미술학부에서 미술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1888년 10월 23일 빈센트는 미술학부에서 미술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1889년 5월 8일 빈센트는 미술학부에서 미술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 손과 귀로 느끼는 빈센트 반 고흐

### MEET VINCENT VAN GOGH

빈센트 반 고흐, 한번쯤은 들어봤을 세기의 천재 화가인데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직접 만져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난 4월 19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서울 시청역 부근에 위치한 우정아트센터에서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보고, 듣고, 만져볼 수 있는 체험형 전시인 '빈센트 반 고흐를 만나다'가 열리고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1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850점이 넘는 유화와 1,200점이 넘는 소묘를 남긴 화가인데요. 고흐의 작품은 작은 자극에도 훼손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암스테르담의 반 고흐 미술관에서 작품을 다른 장소로 반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 고흐 미술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반 고흐의 작품을 느끼고, 전 세계인과 함께 반 고흐의 작품을 공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관객이 다양한 방법으로 고흐의 작품과 그의 세계에 공감할 수 있도록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3D 프린터 기술을 접목해 시각, 촉각, 청각을 모두 활용한 것이 이번 전시의 특징인데요. 그의 마지막 순간(Wheat field), 화가로서의 시작(Emerging Artist), 남부 프랑스(Arles), 노란 집(Yellow House), 광기 어린 천재(Illness&Creativity), 위대한 유산(Success)의 6개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오디오 가이드가 무료 제공된다는 것인데요. 오디오 가이드는 전시회를 관람하는 동안 설명이 필요한 지점에서 자동으로 전시 해석이 흘러나와 관객의 이해와 몰입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시장 곳곳에는 반 고흐가 작업을 했던 공간이나 머물렀던 곳, 그림 속의 장면 등이 실제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반 고흐의 침실, 작업 공간, 그가 머물렀던 정신병원 등의 공간을 직접 만져보고,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살아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빈센트 반 고흐, 그러나 그는 자신과 자신의 그림을 믿었는데요.

고흐는 “내 그림들이 팔리지 않는다면 나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지만 언젠가는 사람들이 내 작품에서 우리가 쓴 비용, 물감값과 정말 얼마 안 되는 내 최저 생활비 이상의 가치를 보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더위가 시작 되는 여름, 자신이 그린 그림의 가치를 믿었던 고흐의 매력적인 작품을 만나러 가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 새로운 도전

류재성(시각 1급\_서울특별시 종로구)

2019년도 벌써 몇 달이 지났다. 기해년을 맞아 새롭게 다짐을 하면서 뭔가 이룰 것들을 생각해보았다.

인천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니던 중 4학년 때 녹내장으로 눈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먹은 것을 다 토했는데 그 후부터 온 세상이 뿌옇게 보였다. 그 날 이후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점점 눈이 나빠졌다. 학교에서는 칠판의 반쪽에 있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서 앞에 나가 적는 일이 잦아졌다. 견디다 못해 담임 선생님께 말씀 드린 후 왼쪽 맨 뒷자리에서 정중상으로 자리를 옮겼다.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것이 느껴졌다. 상대방이 치는 배드민턴의 셔틀콕은 보였지만 내가 치면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와 장기를 두다가 굴러간 장기 알초차 못 찾는 지경에 이르렀다. 눈앞에 두고도 장기 알을 찾지 못하는 모습을 아버지께서 보시고는 나를 안과로 데려가셨다. 동네 안과에서는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다. 그렇게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했으나 이미 시기가 늦어져 별 차도가 없었다. 약시 상태에서 인천해광학교로 전학을 했다. 중학교 3학년까지는 미약하지만 시력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3학년 시절의 어느 날,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실명을 해버렸다. 밤늦게 스탠드를 켜 채 공부를 한 탓이었다.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몇 날 며칠 동안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기만 했다. 그러나 평생 울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우선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나의 첫 번째 도전이 시작되었다. 접자를 새로 배우니 읽기가 느렸고 처음 겪는 여러 상황이 더욱 어렵게 느껴졌다. 그래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려 애썼다. 마침내 특수교육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즐겁게 대학 생활을 보냈다. 이후에는 교수가 되기 위해 특수교육 대학원에 들어갔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로 서울맹학교 교사가 되는 기회를 얻었다.

그 때 시각장애인에게는 스포츠마사지사 및 피부미용사 등의 헌법소원 및 무자격 안마사의 난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기다리기에는 불안했다. 직접 나서서 대안을 찾아야했다. 의료업권의 수호와 자기개발을 위하여 두 번째 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정신적 치료를 위해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에 지원했다. 대학원 공부는 생각보다 더욱 힘이 들었다. 대학을 다닐 때에는 특수교육과라 그랬는지는 몰라도 같은 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며 수월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대학원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동기들은 각자의 직장 생활로 다들 바빴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 다행인 것은 어려움 중에서도 돕는 손길이 있었다. 아는 사람들을 통해 크게 작게 도움을 받으면서 인지심리에 관한 집단 상담으로 논문을 쓰고 석사학위를 간신히 받았다. 공부가 어렵기는 했지만, 상담심리학을 배우니 마음의 안정감이 생겼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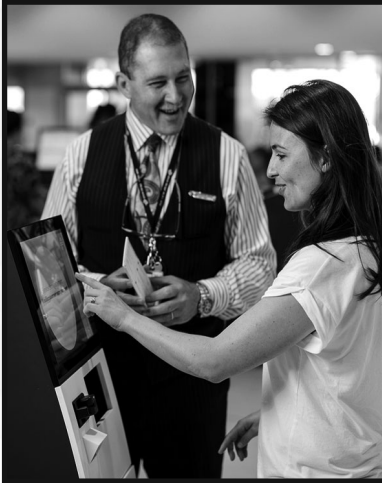
세 번째 도전은 박사과정에 지원한 것이었다. 마침 생긴 활동보조 제도가 큰 도움이 되었다. 1학기 때에는 수원 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어가 했는데 활동보조인이 직접 차를 운전해 주어서 편하게 통학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국가에서 한 학기에 500만원씩 지원을 받는 전문 도우미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 제도를 통해 점역사에게 교재 점역을 부탁드릴 수 있었고, 그 덕에 점역된 논문자료와 교재로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제도적 지원들 덕에 한결 수월해지긴 했지만 역시나 박사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박사 논문을 쓰는 일은 고역이었다. 특히나 시각장애를 가진 나는 논문을 애써 찾아서 다운을 받아도 이미지여서 읽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워드로 입력하고 정리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또한, 요통 치료 실험 논문을 쓰다보니까 측정기기를 돌려야 해서 도무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었다. 때문에 아르바이트생과 지원인력이 많이 필요했다. 심지어 학교 내에 병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환자를 모집하는데도 어려움이 컸다. 여러 이유로 실험에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었다.

박사 논문을 여러 번 고쳐 쓰느라고 5년 반 만에 드디어 졸업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여서일까. 안마에 관한 의학박사 학위를 받을 때에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른다.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고,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박사학위 받은 것을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었다. 방송에도 알리고 싶었지만 한의학계에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기 위해 알리지 않기로 했다.

정신치료를 위해 심리학 석사 2년 반, 육체적 치료를 위해 대체의학 석사 3년, 정신과 육체의 완전 통합을 위해 대체의학 박사 5년 반. 그렇게 총 11년이 걸렸다. 내 인생의 11년은 시각장애인들의 의료업권에 도움이 되고 싶어 투자한 시간이었다.

다음 도전은 지금까지 공부해온 의학과 동양철학, 경제, 심리학 등을 접목한 것이 될 것이다. 이제는 IT의 눈부신 발전과 장애인에 대한 시스템의 정비로 인하여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다. 도전은 계속된다. 나는 아직 이룰 것이 많다.

## 시드니 공항, 시각장애인 여행객 위한 새로운 기술 도입해



시드니 공항은 시력이 좋지 않거나 시력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iOS와 Android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작동할 수 있는 Aira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Aira는 사용자가 작동을 할 경우 실시간 영상을 상담원에게 전달한 다음 상담원이 즉각적이고 개인화 된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여 위치 등을 알려주는 사용자 지원 서비스입니다.

시드니 공항의 CEO인 제프 컬버트(Geoff Culbert)는 이 조치가 시각장애인의 공항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공항의 첫 걸음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기술로 호주의 전맹 혹은 저시력 시각장애인 38만 명이 공항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 카메라로 세상을 보는 영국의 사진작가 Ian Treherne

Ian Treherne은 영국의 유명한 사진작가입니다. 청각장애인으로 태어난 Treherne은 15세 때 시력도 잃기 시작했습니다.

어셔 증후군(Usher syndrome)이라는 희귀한 유전적 질병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이후 그는 수십 년에 걸쳐 시력의 95%를 잃어버렸고, 약간의 시야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Treherne은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꿈인 사진작가가 되기 위해 10여 년 동안 사진에 대한 열정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Treherne은 여러 유명인들과 함께 작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Treherne은 시력의 상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그의 사진을 더 오래, 더 많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NEWS



## 가정 내 잔고장,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 연락주세요!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6월부터 서울시 참여예산 지원으로 서울시에 거주 중인 중증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 내 잔고장 수리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비장애인이라면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전등 교체, 콘센트 수리, 수도, 방충망 수리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일상적인 수리 및 생활 위험요소의 사전제거 수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잔고장 수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리 범위는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하기 힘든 형광등 교체나 방충망수리, 못박기 등으로 복지관 내 전문수리기사를 고용하여 파견하는 형태로 수행되는데요, 서비스 제공 후 모니터링 및 욕구조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료비는 본인 부담이 원칙이나 예산 한도 내에서 수급 및 차상위 계층,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대상자 가정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성과를 확인 후 서울시를 통하여 지속적인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한할 예정입니다.

주변에 신청을 원하시는 시각장애인 분이 계시면 서비스 신청 방법이나 문의는 복지관 지역사회복지팀 (02)950-0185~6번으로 전화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10회 시각장애여성지도자 연수 성료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제10회 시각장애여성지도자 연수'를 5월16일 목요일부터 1박 2일 동안 충남 천안에 위치한 오렌시티호텔에서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리더십 함양과 시각장애여성의 발전을 위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각장애여성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실시 되었는데,

주요 교육 내용은 천안 서북소방서 진유진 구급팀장의 ▶ '심폐소생술 및 상황별 대처방안',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정금 사원의 ▶ '직장 내 인식 개선교육 강사 취득 및 활용 노하우'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한시련 홍순봉 중앙회장의 주제로 진행된 간담회를 통하여 장애인 등급제 개편방안, 편의시설 실태,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실태 및 개편방안, 복지정책 등 시각장애계의 현안을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여성리더의 역할에 대한 의견 개진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도 하였는데요, 연수 담당자는 앞으로 폭넓은 시야를 가진 시각장애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 정책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할 계획이다.



### 2019년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가 열렸습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라남도 순천, 여수, 광양을 돌며 ‘2019년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팀의 주최로 진행된 이번 휴가제는 돌봄 주 양육자인 분들 총 26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요.

온전한 휴식을 통해 가족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천 송광사, 순천만정원 탐방, 여수 해양 레일바이크 탑승, 오동도 관광 및 여수 야경크루즈 탑승, 광양 와인동굴 관람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휴가제 참가자들은 오랜만에 힐링 할 수 있는 시간이 었다며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 2019년도 소리특강 15기 수료식 열려

지난 5월 29일 수요일,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2019년도 낭독봉사자 양성을 위한 소리특강 15기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소리특강은 낭독봉사자가 되기 전 시각장애인에게 듣기 좋은 목소리로 도서를 낭독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인데요.

이번 기수에서는 소리특강에 참가한 12명 중 10명이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낭독봉사자로서 수료자분들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 노래방에 갈 때

시각장애인들은 암기력이 대부분 좋은 편입니다. IQ가 유독 높다거나 비장애인보다 더 좋아서가 아니라 필요한 것을 외워두는 생활이 습관화됐기 때문이겠지요. 노래방에서 노는 모습은 비장애인들이 어우러지는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울리세요.

단, 노래방 자막이 너무 작고, 곡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세요. 시각장애인이 선호하는 곡명을 찾아 달라고 하는 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사를 잘 모르는 노래라면 한 소절 앞부분 가사를 읽어주어 따라 부를 수 있게 하면 됩니다.

함께 자리한 사람들이 친구나 가족같이 편안한 사이에는 관계 없지만, 직장처럼 상하가 있는 관계나 아직 덜 친한 사람들 이 섞인 경우 적절히 노래순서를 안내하는 것도 배려라 하겠네요.

TIP. 기왕이면 요즈음 대형화면이 나오는 좋은 시설이 많은데, 저시력인 분들과 가신다면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센스!

### | 후원안내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 에게 소중한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 로 번 호 7608162

계 좌 번 호 우리은행 1006-601-227253    신한은행 100-030-501953

예 금 주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